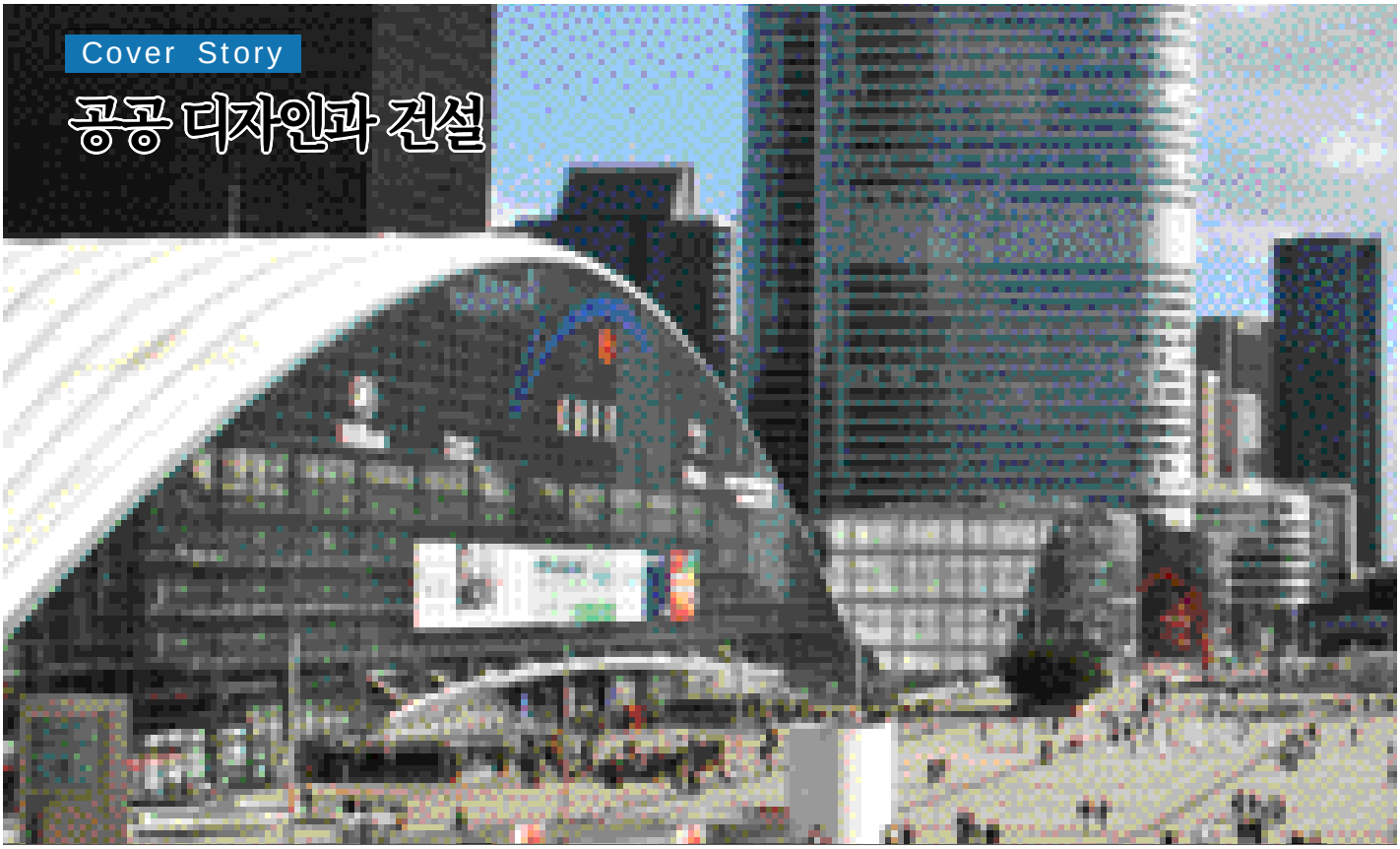


# 新 성장 동력 -‘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

## - 무국적의난개발에대한반성, 문화 · 국토 · 도시디자인이국가경쟁력의척도 -

최근출범한이명박정부는인수위원회에서향후5년간핵심국정과제의하나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를 제안하였다. 내용의 핵심은 디자인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고유한문화정체성을확립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지방자치의 본격화 이후 주요 지방정부들이개별적으로추진해오던 사업들이다. 앞으로 국가 디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향후큰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도시 공간 설계가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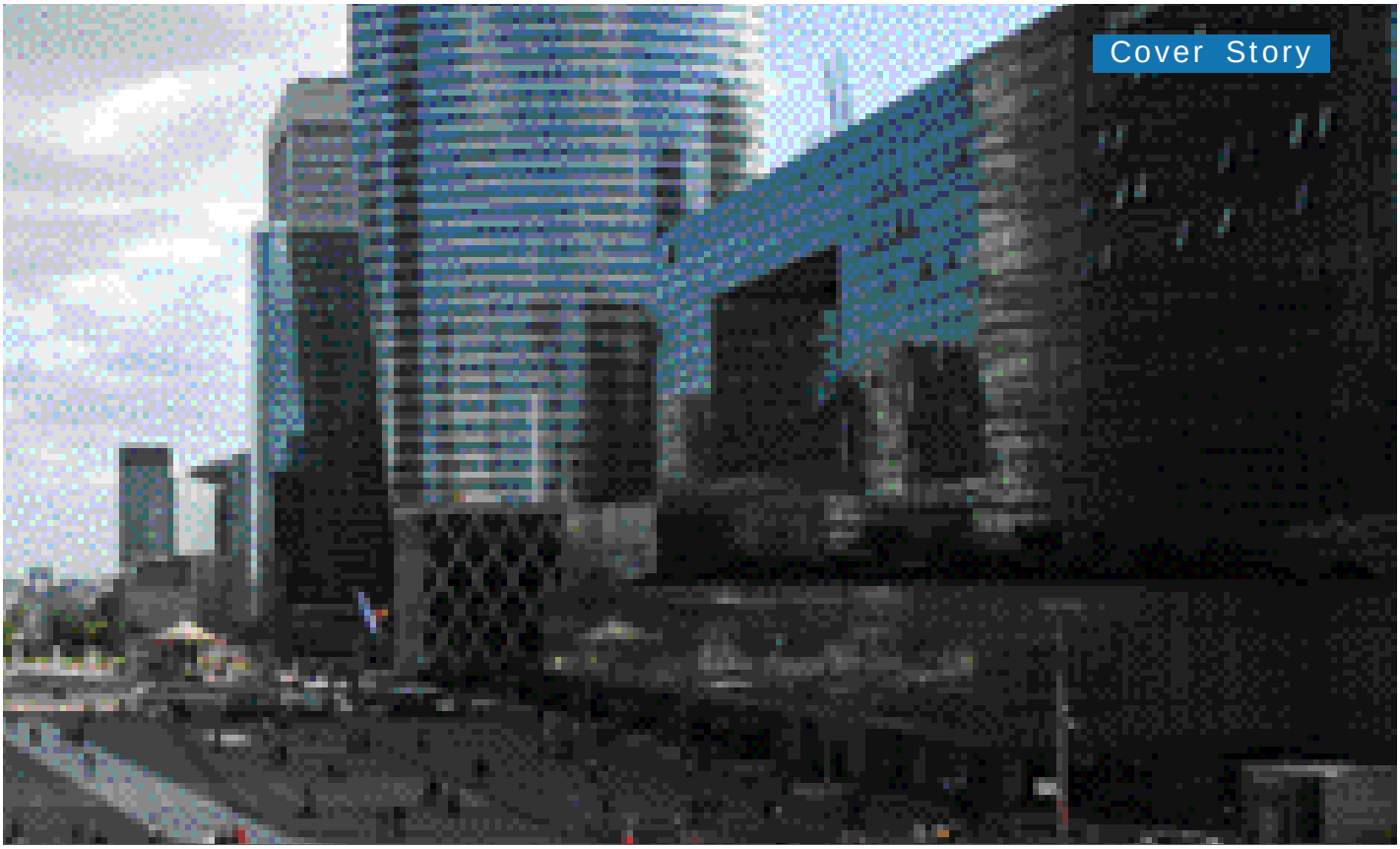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도시공간설계나건축물설계,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 조정체계를도입하고, 이를관리할위원회등의정부부서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또한 「건축기본법」등의정비를통해도시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 장기 계획된 공간 디자인 태부족

우리의 국토 및 도시 공간을 평가해본다면, 첫째, 우리는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이를 증명할 만한 공간디자인을가지고있지않은반면, 유럽에는유서깊은역사도시가즐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제에 의한 근대화 과정과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자산을보존할수있는기회를상실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전통성과 정체성을상실하게되었다.

둘째, 장기적인 공간 계획의 부재로 인해 무질서한 도시 공간을 양산해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무질서한 간판 · 현수막, 공공성을저해하는건축및주택외관, 형식적인공공미술의설치등의문제가대표적이다.

이러한 우리 국토 및 도시 공간의 문제점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달성은 경제적으로나군사적으로경쟁력이있는국가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주변국가를포



프랑스는 퐁피두정부에서는 퐁피두센터를, 미테랑정부에서는 라데팡스를 계획·건설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 도시인 파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시대 정신과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공간으로창조하고자노력하였다. 사진은프랑스라데팡스전경.

용할수있는문화적 포용력과국제적위상이 확립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의국토및도시는내적으로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외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발전시키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난개발로 국적 없는 공간 생산

실제 우리의 도시와 국토는 산업화의 그늘속에서말그대로 난개발이이루어져왔다고평가할수있다. 이과정에서는동일한 수준의 역사를 지닌 다른 도시나 국가들과 비교할 때정통성이상실되었고, 자본중심의도시및국토개발로인하여국적이나특색없는공간을생산하는데이르렀다.

외래어보다는외국어에가까운 디자인코리아라는 용어 선택의 적절성을 배제한다면, 현시점에서이와같은정부정책의방향은매우시의적절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향후우리나라는삶자체보다는삶의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고려한다면, 관련된일련의주요추진사업이우리공간의질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도시 디자인의 의미 논의해야

디자인은 사전적으로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뜻을가지고있는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유래한다. 현대적의미로는관념적이기보다는실체적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 코리아에서디자인의실체적성격만강조되면 우리국토및도시의미적부문만강조할우려가있다.

국가 정책으로서의 디자인은 실체적인 현대적의미도중요하지만어원에서기인하는 관념적 의미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국토및도시의미적부문개선을통하여무엇을 표현하고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더진행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 유럽, 도시 디자인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실제로 유럽에는 도시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시도는 일반적으로 있어 왔다. 조상이남긴벽돌하나라도잘간직하려고노력하면서옛것에집착하는유럽인들조차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공간의 창출을 통해, 공간을 문화 자산화하여 경쟁력 있는재화로만들기 위한노력이계속되어왔다.

실제로 프랑스는퐁피두정부에서는퐁피두센터를, 미테랑정부에서는라데팡스를계획·건설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 도시인 파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시대 정신과 문화를반영한새로운공간으로창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영국도 늘어나는 이민자와 부족한 오피스건물,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프랑스의 디자인개선을위한노력등을보면서디자인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이에 보수당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영국에서는 밀레니엄 돔 · 런던아이 · 밀레니엄 빌리지 · 테이트 모던 갤러리 등이 건설되어 빅밴 · 타워브리지 등의 전통적인런던의랜드마크와 함께 새로운랜드마크를형성하고있다. 사진은영국의밀레니엄빌리지.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세금 낭비 및정치적결정이라는비난에도불구하고블레어정권이 들어선이후에도 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미 밀레니엄 돔 · 런던아이 · 밀레니엄 브리지 · 테이트모던갤러리 등이건설되어 빅밴 · 타워브리지등의전통적인런던의랜드마크와함께새로운 랜드마크를형성하고 있다.

디자인은 이미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국가성장동력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영국의 셰필드, 스페인의발비오등의성공은주목할만하다.

디자인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나도시의내면을살펴보면전통성을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을거치면서도시정체성을상실함과동시에산업화가정체기에들어서면서도시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서구 도시의 경험은 우리 도시의 상황과 매우비슷하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 국가문화의디자인은국가경쟁력의가치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스위스, 덴마크 등에 이어 11위에이름을 올렸다. 그러나이는우리가인식하고있는경쟁력순위보다는 매우 높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실제 체감하기어렵다는생각이든다. 물론국가경쟁력을평가하는지표는다양할수있다. 그러나 이러한평가는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가시적이고정량적으로표현가능한지표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기에서는 주요 지표로 경제력 관련 지표가 대거 활용됨에 따라 높은 순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와같은지표들은짧은기간에도얼마든지급속한변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2006년의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27위를 차지한바있다.

하지만 국가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역사를바탕으로국민들의삶속에서묻어나야만국가경쟁력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국가 문화를 가시화할수있는것은디자인일것이다.

우리는 반만 년이라는 역사를 바탕으로 불상, 도자기, 건축물등의디자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문화를 창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서구화가 동일시되면서, 이들문화적장점을소외시켜왔다.

국가 및 도시 문화는 디자인으로 표현이 되고, 이는국가및도시의경쟁력으로나타날수있다. 이들디자인은가시적으로는유럽의역사 도시에서처럼관광산업에서활성화로가시화될수있다. 하지만이보다더가치 있는 디자인에 의한 편익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무형의 자산이기는하지만자신이속한국가나도시의 자긍심으로 표현되며, 그 가치를 유형의 자산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새정부의디자인코리아정책은 관장 재화의 개발 측면보다는 시민의 삶의질향상에좀더초점을맞추어정책방향을결정해야할것으로본다.

## 국토와 도시에 창의적 발전 방향 제시

디자인에의해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자 하는정부의정책방향은그동안의산업성장 위주의 합리성만을 추구해 온 우리 국토 및 도시의 상황에 새롭고 창의적인 발전의 방향을제시했다는점에서상당한의미를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의 개념이 물리적 공간 창출에만 한정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과격리된디자인은시민의삶의질을 향상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위적인도시공간의형성으로치우칠우려도있다. 이는과거공산주의국가나권위주의국가의공간디자인에서나타났다.

## 커뮤니티 디자인도 병행해야

하지만, 휴먼 스케일에서 벗어난 거대한 광장, 권위적으로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건축물 등의 디자인 표현은 시민들의 삶의질을향상시키기보다는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물리적 공간디자인만을 강조하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디자인도 병행되기를당부한다.

이주형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교수